

‘광주형 일자리’ 막바지 협상 ‘빈손’...2~3가지 이견 여전

광주시, 현대차와 다음주 협상 재개...무산시 후폭풍 클 듯

광주시가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현대자동차와의 협상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두고 벌인 협상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했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과 여·야·정의 전폭적인 지원 선언 등 주변 여건에도 현대차와 노동계 간의 2~3가지 이견에 대해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 등 협상단이 서울 현대차 본사를 찾아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협약서에 담을 내용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였다.

이날 협상은 오후 2시부터 시작해 수시간 이어졌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다음주에 다시 만나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앞서 전날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이어진 광주형 일자리 투자유치추진단 2차 회의에서는 지역 노동계의 일부 요구

사항을 투자협약서에 반영할지 여부 등을 논의했다.

광주시 협상단은 이날 투자유치추진단 회의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현대차와 협상에 나섰지만 예민한 부분에 대해 여전히 현대차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안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임금 수준이나 공장 운영의 지속가능성 등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차와의 투자유치 협약이 끝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국회 일정상 이날 말이면 예산심의가 종료되기 때문에 광주형 일자리 관련 예산을 확보하려면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차와 노동계의 급격한 입장 변화가 없는 한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지난 6일 이용섭

광주시장이 국민과 노동계에 광주형 일자리 관련 호소문을 냈고,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도 현대차와의 협상에 2~3가지 조율해야 할 부분을 밝히는 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부시장은 “협상에서 서로 민감한 부분이 많아 맞추려다 보니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100%는 아니라도 양측에서 일부를 수용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고 희망 섞인 발언을 했다. 협상이 무산될 경우 책임론이 부상하면서 상당한 후폭풍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무산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미래 제조업의 혁신방안으로 내세운 ‘새로운 일자리 모델’이 사라지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강성 현대차 노조와 민주노총의 압력에 굴복한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어 앞으로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도 높아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광주시도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



‘내가 미래의 소방관’

광주 동부소방서에서 지난 7일 열린 소방관 직업 체험교실에서 고교생이 구조 장비를 실습하고 있다. 동부소방서는 소방관을 꿈꾸는 청소년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주고자 체험교실을 마련했다.

어 정부, 대기업과 신뢰 관계가 무너져 예상 밖의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도 크다. 이병훈 부시장은 “이날 협상에서는 서로

더 검토할 사항이 있어 성과를 보지 못했다”며 “광주시가 이번 협상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더는 길이 없으므로 다음주까지 협

상을 연장에 반드시 매듭지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sh9668@

전남도 ‘꿈사다리 공부방’ 도우미 120명으로 확대

전남도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학력 증진과 청년 일 경험·역량 강화 기회 제공을 위해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꿈사다리 공부방은 도내 고학력 청년을 지역아동센터 학습 도우미로 배치해 아동의 기초학력 보강을 돕는 사업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에게는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학력을,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에게는 해당 학년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키워준다.

전남도는 올해 100명인 청년학습 도우미를, 내년에는 120명으로 늘려 지역아동센터에 배치한다.

현재 꿈사다리공부방 사업으로 2천200여 명의 아동이 학력 보강 기회를 받고 있다.

학습 도우미 확대 배치로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청년학습 도우미는 하루 4시간씩 주 5일간 아동 학습지도를 하고, 약 90만 원의 기본급과 교통비 등 실비를 받는다. /남부권취재본부·윤규진 기자 jin2001@

“주민 반대”...보성군 태양광 발전 허가 기준 ‘강화’

주막·도로 이격거리 500m→200m 완화했다 다시 ‘원점’

전남 보성군이 기존 완화로 주민들의 반발을 샀던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나섰다.

8일 보성군에 따르면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7일 임시회를 열어 군이 제출한 ‘보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정 내용은 태양광 발전시설과 도로, 주거밀집시설, 주막과의 거리를 기존 200m에서 500m로 강화했다.

허가 기준도 ‘전기사업법에 따른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신청 당시 5년 이상 계속해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100kW 이하인 소규모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허가한다’고 명시했다.

의무인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 자체를 막은 셈이다.

보성군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강화한 것은 올해 2월 의원 발의로 개정된 군계획 조례 때문이다. 이 조례에서 태양광 발전시설과 도로·주

막과의 이격 거리를 500m에서 200m로 완화했다.

보성군은 ‘이격 거리가 짧아지면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조례안에 반대했으나 의회는 밀어붙였다.

조건이 완화되자 태양광 발전 허가 신청이 1천건을 넘어서면서 주민이 반발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랐다.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자 보성군은 부라부라 심의 기준을 강화한 조례안을 개정하고 나섰다. 보성군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은 주민들의 삶과 직결돼 심의 기준이 엄격해야 하지만, 기준이 완화되면서 불필요한 민원이 자주 발생해 원점으로 돌리는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성군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보성=김용욱 기자 ywkim@



광주전남 여야의원 ‘경전선 전철화 사업’ 예산반영 한목소리

성명에 광주시장, 전남지사, 시군단체장 등 6명 지자체장도 이름 올려

광주·전남 여야의원 18인과 광주·전남 지자체장들이 8일 공동 성명을 내고 경전선 고속화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즉각적인 예산반영을 요구했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 박지현 의원, 장병완 원내대표, 천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민주평화당 김정진 의원 등 여야의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토균형발전과 영·호남의 화합 및 경제공동체 번영을 위한 경전선 전철화 사업 추진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45억원을 즉각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광주송정역에서 삼랑진역까지 이어지는 경전선은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유일한 철도교통망이다”며 “영남지역은 복선 전철화 사업이 이미 완공 혹은 진행 중이지만, 호남지역인 광주 송정-순천 구간은 일제 강점기에 건설된 이후 단 한 번도 개량되지 않은 단선 비전철 구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 예산 반영 촉구 기자회견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전철 구간으로 남아 있는 경전선 광주송정~순천구간의 전철화 사업 예산반영을 촉구하고 있다.

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5년 가까이 끝어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0.85라는 높은 B/C(Benefit/Cost)를 확보했음에도, 0.01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지역 차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은 권은희, 김경진, 김동철, 박주선, 박

지원, 서삼석, 손금주, 송갑석, 윤영일, 이개호, 이용주, 이정현, 장병완, 정인화, 주승용, 천정배, 최경환, 황주홍 등 18인(가나다순)이다.

자치단체에서는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영록, 강인규 광주시장, 허석 순천시장, 김철우 보성군수, 구충근 화순군수 등 6인 단체장이 참여했다. /김태엽 기자 esaca@

새롭게 도약하는
전남도민일보
능력있는 지역기자를 모집합니다.

강진, 고흥, 함평, 해남

전화문의: 062)227-0000 / 010-9556-0000 (직통)
팩 스: 062)227-0084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유동 33-4) 소석빌딩 5층

사무실 임대

- 지하철 농성역 4번출구 옆
- 화정동 776-12 3층 60평
- 광주버스종합터미널 신세계백화점 금호월드·CGV영화관 인접
- 광주 새우리병원 건너편
- 2층 북교당 한약방 운영중

☎ 062)362-6900

서구 치평동 중흥스카이31 상가 임대

1층 101호 코너자리
전용면적 357.72㎡(108.2평)
보증금 2억원. 월임대료 1천 100만원

108호 전용면적 84.04㎡(25.4평)
보증금 5천만원. 월임대료 250만원

☎ 062)676-0004

나주혁신도시
빛가람 중흥메가티움

상가 125호
상가 201호

전용면적 415.58㎡(125.72평)
(보증금 5천만원. 월임대료 300만원)

☎ 010-4057-7999